광주 '나홀로 차량' 83% 전국 최고

전국 평균 보다 5%P 높아… 대중교통 체계 미흡 원인

평균 탑승자도 1.2명 가장 적어

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30)씨는 매일 아침 혼자서 차를 몰고 회사가 있는 시내로 출근한다. 집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지하철 역이 있지만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게 불편하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다.

직장인 정모(43)씨는 몇년 전 카풀을 하다가 동료와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혼자 차를 몰고 출퇴근 하는 경우. 기름값을 분담하는 것과 아침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 동료의 집 근처로 향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와 카풀을 그만두었다.

지난해 광주에서 운행중인 승용차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은 운전자만 탑승한 '나 홀로 차량' 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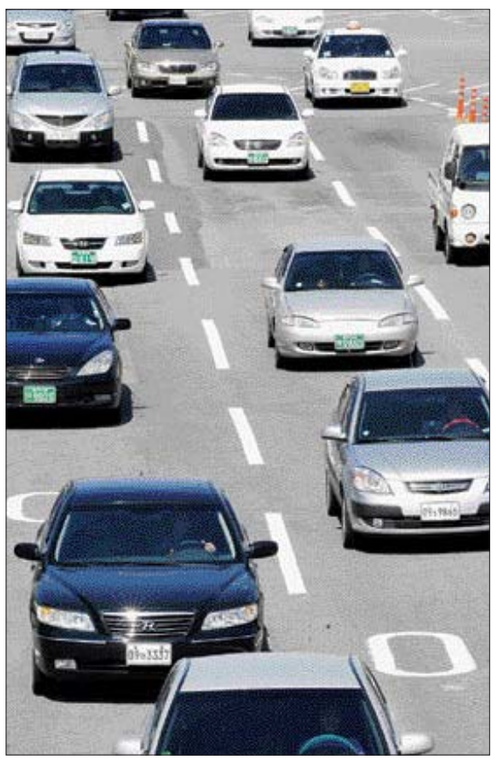
국토해양부(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248개 시군구 200여만대의 승용차 운행 실태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1일 평균 '나 홀로 차량' 비율은 82.7%로 나타났다.

광주의 나 홀로 차량 비율은 전국 평균 77.7%보다 5%p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평균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인원을 뜻하는 재차(在車) 인원은 1.2명으로 서울과 함께 가장 적은 인원을 차량에 태우고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의 나 홀로 차량 비율과 재차 인원은 각각 73.4%와 1.32명으로 나타났다.

나홀로 차량이 많은 것은 승용차 등록대수와 2대 이상 승용차 보유가구,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체계구축은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나홀로 차량 증가로 도심교통 지·정체 등 혼잡이 빚어지고,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주차난 심화, 수송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간선 급행버스 확대 등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카풀 활성화 및 승용차 공동이용(Car Sharing) 활성화 ▲자전거 타기 및 걷기 확산 등 무탄소 교통수단 이용 장려정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8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죽봉로에서 대부분 운전자 혼자 탑승한 '나 홀로 차량'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병원 문영래 교수 개발

어깨관절 치료법 국제학회 '주목'

골반서 치유 물질 뽑아 통증부위에 주사 '효과'

조선대병원 문영래(45·사진) 교수가 개발한 어깨관절 치료법이 해외 언론과 국제학회에 소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관절센터 문 교수의 '어깨관절 퇴행에 관한 골수 혈액치료법'이 최근 로이터통신에 실렸다.

지난해 국내에서 특허출원된 이 치료법은 해외 유명 의료매체인' Health News' 13일자에도 게재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열린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다. 이들 매체들은 문 교수의 치료법을 특허출원된 세계 최초의 시술로, 여타의 치료법보다 믿을 만하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소개했다. 특히 문 교수의 치료법은 교육용 비디오로도 제작됐다.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은 일반적으로 힘줄 파열에 따른 것으로, 파열의 원인이 다쳐서라기 보다는 노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일반 수술 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 교수의 치료법은 인체에서 퇴행속도가 가장 느린 부위 중 하나인 골반에서 단핵구 세포와 혈장 등 치유 물질을 뽑아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입된 단핵구 세포 중 일부가 줄기세포로 분화하면서 관절의 힘과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문 교수는 "단순한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염, 근골격 또는 피부의 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골반의 단핵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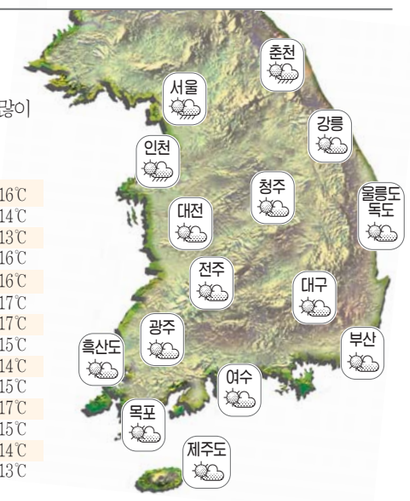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8분 / 해짐 18시 43분 — 달뜸 07시 55분 / 달짐 22시 10분

일교차 커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맑은뒤흐림	-1/16℃
목 포	맑은뒤흐림	0/14℃
여 수	맑은뒤흐림	2/13℃
완 도	맑은뒤흐림	0/16℃
구 례	맑은뒤흐림	-3/16℃
해 남	맑은뒤흐림	-3/17℃
장 흥	맑은뒤흐림	-3/17℃
고 흥	맑은뒤흐림	-2/15℃
순 천	맑은뒤흐림	0/14℃
영 광	맑은뒤흐림	-3/15℃
진 도	맑은뒤흐림	-2/17℃
전 주	맑은뒤흐림	-3/15℃
남 원	맑은뒤흐림	-6/14℃
흑산도	맑은뒤흐림	2/1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3.0m
먼바다	남~남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4:12 16:14	09:19 21:27
여수	10:49 23:19	04:41 16:53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날 씨						
최저/최고	14/16	2/9	2/10	5/10	3/12	2/11

"수달과 백로를 '녹색 광주' 상징으로"

녹색연합, 광주천 수달 이어 운암산에 백로 1500마리 서식 확인

광주 도심에 보금자리를 튼 수달과 백로를 녹색도시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지난 17일 광주시와 북구, 호남대 이두표 교수(생물학과) 등과 공동으로 북구 동림동 운암산 백로 집단서식지를 조사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운암산 자락에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왜가리·쇠백로·중대백로·해오라기 등 백로 1천여 마리가 꾸준히 찾아와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천500마리의 백로가 서식을 했으며, 지난 17일에는 200마리가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오는 4월초 동남아시아로 떠났던 백로들이 돌아올 경우 서식규모는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연합은 운암산 일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심 속 백로 집단서식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주천에서 수달이 발견돼 시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광주천·영산강·황룡강 일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수달과 백로를 녹색도시 광주의 상징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광주시 북구 24일부터

광주시 북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따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위해 '개별공시지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는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상황과 용도지역, 토지 가격 산정방법 등을 설명해줄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자 기준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이종행기자 golee@

4·19혁명 50주년 기념행사 다채

행사위도 첫 구성

4·19 민주혁명 제 50주년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상임위원장 이홍길)는 다음달 18일 오후 3시부터 광주시 빛고을 시민문화관(구동체육관)에서 '4·19 민주대장정'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혁명 50주년 행사를 위해 처음 구성된 행사위에는 4·19 민주혁명 광주·전남지부 등 7개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전까지 추모제와 사진전만 열렸던 것과 달리 ▲4·19 민주혁명 영상물 상영 ▲학생 대토론회 ▲글짓기 시상식 및 체험학습 ▲희생영령 추모제 ▲민주시민 자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